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Observing a Dim Light that will Open the Next Millenium

오원근 / (주)금오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n-Geun

온 백성이 나라의 경제위기로 의기소침해 있고 특히 우리 건축쟁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함 속에서 자신의 속수무책만을 책망하는 이 때 희미한 빛을 보았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 하나는 천년전에 만든 굿판에서 굿을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천년의 신새벽에 굿을 할 굿판을 만드는 일로 그 빛의 진원지다.

물론 전자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문화 EXPO 이야기이다. 문화 EXPO가 무엇인가. 천년 고도 경주라는 무대 위에서 각국이 자신의 문화를 공연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이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품을 파는 일이다. 따라서 경주는 문화라는 상품을 파는 커다란 장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가 문화장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경주 천년 문화유산이 경주문화 EXPO라는 무대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무대장치로 쓰여지면서 많은 이들의 발 걸음을 경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라는 무대에 어울리는 무대장치, 이는 천여년전 우리 선배쟁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 놓은 보물로써 이는 이집트의 석수도, 중국의 목수도 아닌 우리의 선조가 우리 땅에 만든 것이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만든 문화유산이기에 천년이 지난 지금 남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지 않는가.

천년후의 손님을 위해 무대준비는 우리 몫이다.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빛은 상암경기장 시공자 선정결과에서 보았다.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건설사팀이 소위 한국 건설업계 빅5의 공동 도급회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설계의 우수성이었고, 특히 그 설계자가 빅5로부터 사무실 규모가 작다고 퇴짜 맞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내 일처럼 흥분한 사람이 나 뿐이었을까. 오늘 아침 신문에 빅5의 간사회사 사장이 바뀌었는데 상암경기장 주주실태가 큰 원인으로 보도됐다. 나하고야 이유가 다르겠지만 회사 고위층이 꽤나 흥분한 모양이다. 나는 언론매체에 공개된 당선작의 투시도밖에 보지 않아 나름대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없고 참여하였던 설계사무소들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다만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큰 것을 선호하고 모든 것을 양으로 판단하는 이 풍토에서 사무실이 작다고 홀대받았던 건축사가 해냈다는 사실이다. 사실 창작이란 수많은 인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우수한 천재가 만드는 것 아닌가?

요즘은 공공시설물 설계하나 수주하려면 설계입찰에 참여하거나, 설계경기, 아니면 PQ심사후 제한적 설계경기에 참

여하는 수밖에 없다.

굳이 한국의 건축문화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러한 건축계의 비극적 현실 속에 이런 몰이해적 발상을 해낸 사람, 이런 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아들 앞에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라고 땀땀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나마 설계경기는 좋은 설계를 얻으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최근의 설계경기는 보통 50개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참가한다니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출혈이다. PQ 심사라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붕어빵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고, 몇 년의 경력이 있느냐를 따지고 심지어 빵틀 개수까지 따진다. 이는 건축설계과정을 붕어빵 제조과정 정도 수준이나 제품생산과정 정도로 이해하고 창작이란 설계본질은 외면된 처사다. 건축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설계사무소는 여러 개가 모여 몸집 부풀리기 경쟁을 하고 살림커진 소장은 설계보다는 로비가 주업이 되어 로비 잘 하는 소장이 각광받는 세상이 됐다. 이런 때 상암경기장건은 우리에게 한줄기 빛이 아닌가 - 우수한 건축사 한 명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 - 그 이상은 사실상 어깨불리기하는 동물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로 치부하고 건축을 위한 행위를 금전적으로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진흥책을 쓰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환영받는 요즈음의 건축계 현상 -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건축사의 선택이 더 우선함을 이야기해 주는 이 좋은 예를 계기로 천년 후에 또다른 문화 장터를 열어야 할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제 건축이 무엇이고, 문화장터가 생길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큰 소리로 다 외치며, 한편으로 우리는 천년 후의 아니 백년 후의 무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우리는 절망에서 구할 희망한 빛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문화장터를 위한 초석을 깔고 바람을 막자.

시월은 우리 건축사협회의 회장선거가 있는 달이다.

원래 선거란 '더 좋은 것보다는 덜 나쁜 것을 뽑는 것이다' 라는 속설이 있기는 하지만 제발 이번만은 공(功)도 세우지 않고 이름이나 내려고 근시안적이고 달콤한 공약(空約)이나 남발하는 후보보다는 우리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천년 후의 손님을 위하여 작더라도 실천가능한 문화적 공약(公約)을 제시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한 후보를 회장으로 뽑아 우리 문화장터를 위한 든든한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